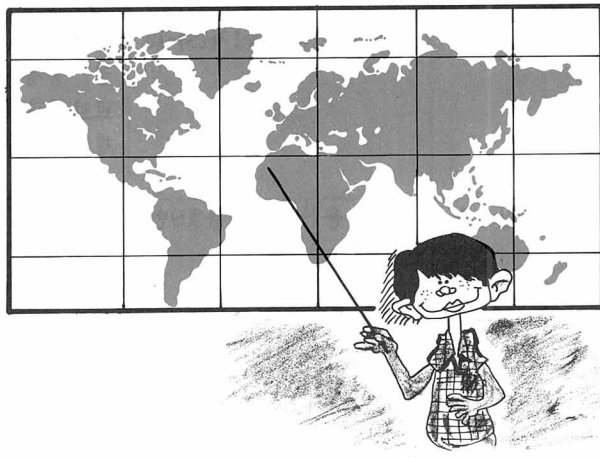


國際氣流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미국

21세기의 미국 전기통신정책 제언

「미국이 21세기를 향해 발전해 가는 중에, 유례없는 가능성과 기회를 내포한 전망이 출현해 오고 있다」로 시작되는 전략적인 제언 보고서가 미국 상무성 전기통신 정보국(NTIA)에서 발표되었다.

「NTIA텔리컴 2000」으로 표제한 이 보고서는 과거 20년간의 미국 전기통신정책에 대해서 대담한 문제를 지적, 21세기를 전망한 전기통신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트러스트법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 전신전화회사(AT&T)의 분할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첨단의 전기통신, 정보기기 분야의 무역수지를 흑자에서 대폭적인 적자로 전락시켰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의 중요한 전기통신정책 결정이 「때

때로 편협한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정부기관과 재판소에 의존 허술한 정책결정이 보다 넓은 시야에서의 일관된 정책 결정을 방해하여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잃게 하고 있으므로 보다 집중화된 정책결정기구의 확립을 차기 대통령에게 제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670페이지에 달한 역작으로 제1부 전기통신·정보분야에 관한 폭넓은 정책제언 제2부가 과제별 현상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텔, 멀티미디어를 통합한 DVI제품 개발 판매

인텔사(산타클라라소재)는 텍스트정보를 CD-Rom장치로 조작하는 동화상·정지화상·그래픽·음성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PC에 통합하여, 조이스틱을 사



國際氣流

용, 화면을 리얼타임으로 조작이 가능한 DVI (Digital Video Interactive) 제품을 금년 6월부터 순차 판매한다. 이 제품은 3개의 단계로 발표될 계획이며, 제1단계는 IBM PC/AT의 호환기종에 대한 부가 보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12.5 MIGS (100만 명령/초)의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VDP) 2개를 탑재한 비리오보드,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40 Kbps의 오디오 보드, CD-ROM (컴팩트 디스크에 의한 입출력 Rom) 장치와 조이스틱과의 인터페이스보드 등이다. 내년부터의 제2단계에는 VDP 등의 칩을 개체로 판매하고, 1991년부터의 제3단계에는 CD-Rom 장치 본체에 칩을 넣어 가정 대상의 저가격 교육시스템과 게임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인텔사는 작년에 GE사로부터 DVI사업부문을 매수한 바 있다.

HP, YHP가 「영어 - 아시아 각국어」 변환 툴을 개발

휴렛팩커드사와 일본의 요코가와 HP사는 영어로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아시아 각국어로 표현가능한 툴을 만들었다.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로의 변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일본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영어로 이서하는 작업도 간단해지게 되었다.

IBM이 지멘스와 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에 자본 제휴

미국 IBM은 서독의 지멘스와 통신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에서 자본제휴를 하였다.

양사는 미국에 판매회사 Rolm을 설립하고, 지멘스는 미국에 개발, 제조회사인 Rolm 지멘스사를 설립하여 Rolm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따라서 미국내의 판매 서비스는 금후 Rolm사가 담당하고 외국에서는 종래와 같이 각국의 IMB가 담당한다.

미국의 정보서비스 산업매상고, 금년 900억달러 예상

미국 정보서비스 산업은 금년 매상고가 900억 달러에 달하고 1993년에는 15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내역은 S/W제품이 1993년에 620억, 2위는 정보처리/네트워크 서비스가 477억, 3위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가 300억, 그 다음이 터키 시스템이 138억 달러 등이다.

미·일 항공사 항공 예약 발권 시스템 분규

컴퓨터 예약, 발권시스템(CRS)에 대하여 미국 운수성이 일본항공(JAL)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기전 관련사들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제소당사자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AL)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항공회사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UAL이 「일본 국내의 UAL의 CRS로 JAL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미국 운수성에 제소한 것이 발단된 것이다. JAL로 「일본국내의 JAL CRS로 UAL 항공권을 발권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JAL도 자사의 CRS로 타사항공권을 발권하지 않고 있다」고 반론을 하고 있으나 미국 운수성은 UAL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작년 12월 14일 미국의 CRS로 JAL항공권 발권을 중지하도록 제재할 것을 결정, 금년 1월 4일까지 의견이 있는 항공사는 제출토록 요청하였었다.

이에 따라 미국 최대의 CRS를 보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항공을 시작으로 노스웨스트항공, 델라항공, 컨티넨탈 항공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의 전일본항공, 일본화물항공도 반대의견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은 「JAL과 UAL의 민간기업끼리의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항공회사로서는 미국내에서 자사 CRS에 의한 JAL항공권 발권을 하지 않고 제재 내용은 메리트

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기업 최고경영자 신상 현황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가 조사한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중심으로 상위 300개사의 최고경영집행책임자의 실상을 보면 최고경영자의 평균재직년수는 7.7년, 1년 미만이 20명, 5년 미만이 148명으로 전체의 약 반을 점하고 있다. 입사후 최고경영자가 된 평균년수는 18.9년, 취임시의 평균년령은 49.7세, 입사후 평균근속년수는 26.7년이며 그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 령 : 300명의 현재연령은 평균 57.4세
- 케리어 : 재무출신 76명으로 25%, 마케팅 54명 18%, 기술 49명 16%, 법무 23명 8%
- 학 령 : 예일대 출신 17명, 프린스턴 10명, 노스웨스턴 6명, 펜실바니아와 하버드 5명등 대졸이상이 94%이며 이중 경영학 석사 취득자가 70명으로 23%, 경영학 이외의 석사 47명, 경영공학 16명, 박사학위 취득자 21명
- 연수입 : 1987년 300명의 평균 연봉 95만 2000달러이며 이중 100만달러 이상의 연수입자가 113명으로 38%, 200만달러 이상 8명등 95만달러 이상이 50%.
- 출신지 : 외국출생자 17명 5.6%, 뉴욕주 42명

일본

마쓰시다전기산업회사의 가정용 VAN 운용실험

마쓰시다전기산업(주)가 PC통신 통신위성에 의한 영상정보가 동시에 이용가능한 가정용 VAN운용실험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관동 관서지역의 마쓰시다 그룹 사원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용자를 일

반공모하여 쇼핑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며 시스템 운영은 일본 텔레넷 회사가 담당한다.

후지산, 가정용 32비트 PC 발표계획

후지산사는 금년 3월, 가정용 PC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동사는 지금까지 8비트 PC를 가정용으로 판매해 왔으나 새로이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 고성능 PC를 제작하여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정용 PC시장 세대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격은 본체가 39만 8000엔 이다.

CPU는 80386을 사용하고 가정용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주변기기를 내장하거나 외부접속이 가능하다. 본체에는 1메가바이트의 주기억, 3.5인치 FD장치, 640×480도트로 최대 1600만 색중 256색 표시의 고성능 그래픽기능, CD-ROM장치, 사운드기능등을 표준으로 내장하고 있다.

샤프, 컬러액정 랩톱 PC제품화 계획

샤프는 금년여름을 목표로 컬러 액정 FLAT PANEL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PC를 제품화 시킬 계획이다.

랩톱기인 AX 286L을 베이스로 14인치 대형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가격은 70만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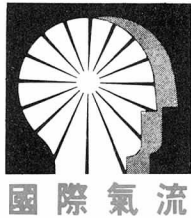
새로운 북태평양 해저 케이블 건설 추진

일본의 국제 디지털통신(IDC), 영국의 C&W, 미국의 PTC등 3사는 1월 하순에 북태평양 케이블 (NPC)건설을 위한 투자자회의를 하와이에서 개최.

이 회의에는 세계의 주요 통신사업자 약 40개사가 참가할 예정인데 IDC는 NPC의 통신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의 통신사업자를 끌어들이 계획이다.

NPC는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해저 광 파이버 케이블로서 1990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주기업은 일본전기, 후기쓰, 영국의STC로 1월중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미국의 AT&T, 일본의 KDD는 비공식적으로 NPC를 이용치 않을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동상태이며 한국, 대만의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소유권 참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C는 AT&T, KDD들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제3 태평양 케이블 (TPC-3)에 비해 회선요금은 반액이하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선용량은 64Kbps환산으로 1만 9천 회선이다.

동남아

인도, 소프트웨어개발에 의한 외화획득을 목표로 통신위성 발사

인도는 S/W개발에 의한 외화획득을 위해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은 장기간 S/W 개발면에서 인도의 저임금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왔으나, 양국간의 통신회선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않으므로 종종 장애가 발생 했었다. 따라서 고품질을 보증하는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우선 2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유럽

이태리 전기통신사업 개방 진전

이태리 우전성은 EC의 구주통신시장 통합계획에 따라 작년 8월 전기통신사업 재편성법안을 성안, 본격적인 전기통신의 근대화를 꾀하고 있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기통신 사업체의 재

편·통합이며 SUPERSTET 계획으로서 명명하여 이태리 전기통신회사 (SIP : 국내전화, 음성급 이상의 데이터전송, 전용선서비스), ITALCABLE(구주 이외의 국제 통신 서비스), TELESPAZIO (국내·국제위성통신사업)의 3개업체와, 이태리 우전성 전화총국(ASST)을 통합, 금년봄까지 새로운 TELECOM ITALIA라는 기업체를 설립하여 모든 전기통신사업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금년에는 모델과 본전화기 이외의 전화기 단말을 EC가맹국에 개방하고, CEPT에 의해 설립된 데이터통신회사 MDNS (Managed Data Network Service)와 미국계 VAN 기업인 INFONET에 공동 출자하는 한편 부가가치 서비스(전자전화 번호부, 텔리텍스트 등)의 공동개발을 목표로 외국 사업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CCITT 제 9차 총회 종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상설기관인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 (CCITT)의 제9차 총회가 지난해 11월 14일 부터 25일까지 호주 멜본에서 개최되었다.

CCITT는 연구기간을 4년으로 하고 매 연구기간이 끝나는 해에 총회를 열어, 각 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새로운 권고 및 수정권고를 채택하고, 다음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예상, 운영방법등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번의 연구기간(85~88년)에는 ISDN시대에 대응하는 ISDN의 유저망 및 국간 인터페이스규정, 번호계획, 요금원칙 등의 연구와 TV전화 서비스의 기본적인 안을 완성하였고, 다음 연구기간에는 ISDN의 서비스확충과 광대역 ISDN들의 본격적인 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는 장래의 CCITT활동 자세를

- (1) modernization (2) flexibility
- (3) efficiency (4) cooperation

의 네가지 사항을 내포하는 멜본 스피리트를 결의하였다.

